

# 1909 <비콘>

Q1, Q2 위치 - 절대위치 :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

실외

GPS로 측정 → 오차 누적+, 그러나 초기에 큰 오차, 실내/터널 신호 ↓

상대위치 : 특정한 위치 기준으로 상대적 측정.

IMU로 측정 → 단기간 측정 아, 그러나 측정값 오차 누적

◦ GPS, IMU 함께 쓰면 - 오차 ↓

Q3 실내 - 비콘 :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 + 위치정보. 좌적 신호 송신.

신호 세기 ↑ = 거리 ↓, 장애물 ↓.

신호 도달 거리 내의 단말기 → 수신기가 신호 인식.

Q4 위치 측정 방법 ① - 근접성 기법

◦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 위치 = 단말기 위치로 함.

Q5 방법 ② - 삼변측량 기법

◦ 신호세기 → 거리로 환산, 비콘 주위에 거리 반지름의 원 그림.

◦ 3개 비콘에의 원 교점 (없으면 공통영역 중심점) = 단말기 위치

Q6 방법 ③ - 위치 지도 기법

◦ 공간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, 구역들이서 비콘 신호세기 미리 측정(기준점)

◦ 단말기가 오면, 가장 비슷한 신호 세기의 기준점 = 단말기 위치.

1009 <점유>

Q1 점유: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

소유: 어떤 물건을 사용/수익/처분 가능.

Q2 직접점유: 물건을 물적으로 지배(빌린거, 보관하는 거 포함)

간접점유: 반환청구권 가진 상태.

점유 → 소유자 공시(권리양립) 기능.

대부분의 등산 = 점유에 의한 소유권 공시 ... ①

Q3 Q: [물건의 소유권 양도하라고 함]

I. 양도계약 후 → II. 양도를 공시하여 함.

①의 소유권 양도 = 점유양도. - ① 점유개념: 양도인 직접점유 유지

② 반환청구권 양도: '야, 나 말고 재한테 돌려줘.'

Q4 문제: [양도인이 소유자 X]

선의취득 → 양도인이 주의를 했는데도 주인이 어쩔 줄 알지 못하면

→ 계약+공시할 때 소유권 아.

다만, 점유개념으로 선의취득 X.

선의취득시, 원소유자 소유권 상실.

Q5. 반환에, 등기·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(②) → 선의취득 X

거대 인면 < 소유자 권리 보호.

# 1909 <영화와 역사의 관계>

Q1 역사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남. (직접 만나지 X)

사료의 불완전성 → 사료는 과거 그대로 재현 X.

∴ 역사 연구 범위 제한. 그러나 역사학의 존재 바탕.

전통적으로 문헌 사료 활용. 그러나 과거가 남긴 흔적 모두 아.

사료 발달 → ① 알려지지 않은 사료 발견, ② 중요 X 사료를 활용 ③ 기존 사료 → New 방향

Q2 시각 매체의 확장 → 영화를 사료로 파악.

문헌 사료의 언어 → 지시 대상과 연관 X. 상징적 기호

반면, 영화는 - ① 물질성 - 물리적 현상을 이미지화

② 도상적 기호 - 동인물로 사물 지시.

③ 지표적 기호 -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

Q3 Q: [영화와 역사의 관계?]

I.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: 영화로 역사를 해석/평가.

① 개인적 역사 서술 방식: 역사적 과정에 충실

②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: 가공의 인물/사건을 다룸.

II.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: 영화에 담긴 역사적 흔적/맥락 검토

Q4 P: [비판적 시각: 영화는 주로 허구이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의 관계]

S: 영화가 아니더라도 허구의 이야기를 이용할 때가 많음.

왜? 사고 방식. 언어 등 다양한 측면 반영. 동시대의 현실 전달.

Q5 영화의 역사적 의미 → '이러로부터의 역사' 형성에 기여.

→ 새로운 사료의 유한

→ 역사 서술이 주체로써 역할.